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공동체별 사진 촬영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네팔과 루마니아 공동체, 그리고 다음 주는 바누아투와 베트남 공동체에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2. 공동체 연합 예배가 2월 6일 (목)에 있습니다.  
장소: 윈 트리 힐 Cornwall Park Playground 주소/ 666-668 Manukau Road, Epsom.  
시간: 오전 10시 30분 예배 후 식사 교제는 공동체별로 합니다.
3. 2020년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2월 3일(월)부터 있습니다.  
범위/ 여호수아서 1장- 사사기 4장 매일 4장씩 담당/ 한누리 집사
4. 2월 10일 주간부터 대심방을 시작합니다. 신청서에 장소(가정 또는 사업장)와 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 목, 금요일, 신청서 본당 입구).
5.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가 매월 셋째 주일 예배 후 오후 3시 30분- 4시 30분까지 있습니다(장소/ 느헤미야 실 이번 달은 16일 주일입니다).
6. 2020년 단기선교 준비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 바랍니다(3시 10분).
7.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8. 금요 기도회가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에 갈급한 성도는 누구든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 2020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 통가에서 사역하는 박종균 선교사의 요청으로 유치원 건축을 위해 이광희 장로, 이정인 집사가 이번 주간 다녀옵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 2월 교회사역일지

2월 6일(목)  
공동체 야외예배  
2월 11일(화)  
대심방  
2월 16일(주일)  
제직회  
2월 23일(주일)  
3040 주일  
2월 26일(수)  
공동체 주관예배(네팔)

## 2월 기도순서

2월 9일 (주일)  
김철재 집사  
2월 12일 (수)  
김선화 집사  
2월 16일 (주일)  
박덕철 장로  
2월 19일 (수)  
김순자 권사

## 2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석목, 김자경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05호

2020.02.02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 청 년 예 배

오후 3시 15분  
금 주 기 도 권우석 형제  
다음 주 일 김다운 자매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43:3-4 -----	인도자
✧ 찬 송	----- 35장 -----	다함께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69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김교섭 장로
성 경 봉 독	----- 창세기 38-13 -----	인도자
찬양대찬양	----- 기쁨으로 찬양하라! -----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 타락한 인간은 -----	이태한 목사
찬 송	----- 538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응 답 송	----- 310장 (1,4절) -----	다같이
✧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	강동호 집사
성 경 봉 독	-----	마가복음 6:1-6
설 교	-----	고향과 친척들
	-----	이태한 목사
찬 송	-----	488장
주 기 도	-----	다같이

## 선교란

**이번 주는 네팔, 인도에서 사역하는 전기봉 선교사 소식입니다.**

갈보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랜만에 소식을 드립니다.

구정을 잘 보내셨는지요? 과거를 추억하면 구정만 한 명절이 또 있습니까 최고의 명절이지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멀리 인도에서 문안드립니다. 긴 겨울 방학이 계속되던 그 시절 어찌다가 2월 초순에 구정이 될 때면 거의 한 달 동안 실컷 이 동네 저 동네 밤 마실을 다니면서 웃고 즐기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10대 때는 고향 창원에서, 20대는 서울에서, 30대 때는 미국에서, 40대 중국에서, 50대 때는 네팔에서, 60대 때는 인도에서 아직 70도 안됐지만 내일은 또 어디로...이곳저곳 돌고 돌며 험한 인생을 아직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수 십 년을 타국에서 구정을 맞았지만 이번 설날은 유난히 고국과 고향, 부모형제가 그리움은 흐르는 세월의 야속함 때문인지 하소연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역들을 후원하고 돕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백배하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지역 오디샤 변방까지 왕복 400km 를 도로가 파괴되어 엉망인 길을 이리저리 우회를 하면서 간선도로(?)를 타고 부지 답사 및 자재를 구매해주고 점심도 계란빵으로 대신하고 아침 6:00 시에 출발해서 저녁 6:00시에 집에 들어오니 눈이 빠질 듯이 현기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젠 티루부루 지역에는 성전을 건축할 장소가 없어서 건축할만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 그 멀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역지를 옮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은 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 수가 없으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야속의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안에서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사역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 육신의 건강(심장,간)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세어지도록.
2. 인생의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3. 호주 산불, 중국의 우한 폐렴 등 재난 속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방이 되도록.

## 나눔란

**2020년 1월 2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아! 슬프다> 창세기 3:1~7**

창세기 3장 1절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바로 전 2장 마지막 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과는 다르게 3장부터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3:7,8,10). 이 죄의 중심에 뱀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3:1)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에서 뱀은 신으로 숭배되었으나 뱀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의 말씀보다 피조물의 말을 듣는 것이 죄입니다. 뱀처럼 영악하고 교묘한 자는 사탄이 이용하기 쉽기에 사탄은 이런 자를 찾아다닙니다.

뱀은 간교하게도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 명령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키는 작전으로 접근합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3:1) 라는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은 사실상 질문이 아닌 의심의 선언이며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보다는 주지 않으신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의심과 유혹의 미끼에 걸려 들은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신 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먹지 말라’하신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과장하며 ‘반드시 죽는다’하신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3:3)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음에도(약 4:7) 하와는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불만 때문에 미혹된 것입니다.

의심을 싹트게 하는데 성공한 사탄은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3:4)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다른 어떤 종교도 공격하지 않지만 유독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하고 예수님만 조롱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 옆에 두신 이유는 인간에게 이미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며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니다.

누구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권하거나 강요 혹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타락의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합니다(3:6) 그러나 내가 선택한 죄는 나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수치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 뱀처럼(민 21:9)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요 3:14) 쳐다보는 자만이 삽니다.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온갖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하며 오직 예수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갈보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 금주의 암송 말씀

**창세기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